

2023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6	4	7	5	8	3	9	5	10	4	11	1	12	2	13	4	14	2	15	1	16	4	17	3	18	1	19	5	20	3	21	2	22	2	23	2	24	3	25	1	26	3	27	2	28	3	29	3	30	1	31	1	32	4	33	5	34	4	35	5	36	5	37	4	38	4	39	3	40	4	41	4	42	5	43	3	44	5	45	4

[화법]

1.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5문단의 '그래서 테트라포드 위에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에서 청중에게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유의하라는 내용의 바라는 바를 언급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자료 활용 계획 파악하기

5문단의 '파도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에서 경사제 방파제의 설치 용이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경사제 방파제의 단면을 도식화한 그림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의 '이 사진 기억하시나요? ~ 알고 계셨나요?'에서 경사제 방파제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체험 학습 때 경사제 방파제를 배경으로 찍은 단체 사진을 추가로 제시하여 청중이 경사제 방파제의 실제 모습을 환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의 '보시는 것처럼 바람이 ~ 가까워질수록 더 높아집니다.'에서 경사제 방파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영상을 추가로 제시하여 해안으로 가까워질수록 높아지는 파도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의 '테트라포드가 있으면 ~ 확인할 수 있는데요.'에서 테트라포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표를 추가로 제시하여 테트라포드가 있을 때 파도의 높이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의 '뒤에 있는 분들도 ~이제는 잘 보이시죠?'에서 테트라포드의 구조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뒤에 있는 청중들을 위해 그림의 오른쪽 아래 부분을 확대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 [출제의도] 청중의 반응 파악하기

학생 1은 '테트라포드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지 궁금해졌어. 더 조사해 봐야겠어.'라고 말했고, 학생 3은 '테트라포드 다리 사이의 각도가 약 109.5도인 이유'와 관련한 '습기진 과학적 원리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어.'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두 학생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학생 1의 발언에서 발표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학생 2의 발언에서 발표에서 다른 정보의 문제점을 제시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학생 2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테트라포드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정보는 생활에 유익한 정보라서 좋았어'라며 발표 내용의 유용성을 점검하고 있지만 학생 1은 발표 내용의 유용성을 점검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학생 2와 학생 3의 발언 모두에서,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화법 · 작문]

4. [출제의도] 진행자의 역할 이해하기

㉔의 학생 2의 발화에서 대화 참여자에게 자신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㉑에서 학생 1은 대화 참여자에게 '지난 시간에 ~ 찾아보기로 했잖아.'라며 지난 활동의 대화 내용을 환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㉒에서 학생 1은 학생 3이 언급한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래?'라며 발언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㉓에서 학생 2는 대화 참여자에게 '우리에게 익숙한 것 위주로 이야기해 보자.'라며 앞으로 진행될 대화 내용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㉔에서 학생 3은 대화 참여자에게 '다음 시간에는 개요를 ~ 수집해 오자.'라고 다음 활동을 예고하며 준비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에서 학생 3은 '우리 학교 ~ 다루기로 했지?'라는 대화 상대의 발언과 관련하여 '이분법적 사고가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는 기사'를 읽은 경험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6.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 확인하기

(가)에서 언급한, 세대를 나누는 기준을 (나)에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에서 언급한 성격 유형 검사와 관련하여 (나)의 1문단에서 '요즘 성격 유형 검사에 ~ 늘고 있다.'라며 사회 현상을 보여 준 후,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에서 언급한 이분법적 사고의 개념을 (나)의 1문단에서 '이분법적 사고란 ~ 사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제시하고,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 ~ 나타날 수 있다.'라며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에서 언급하지 않은 전문가의 견해를 (나)의 2문단에 '사회 심리학자 헨리 타이펠은 ~ 미친다고 보았다.'라고 추가하여 이분법적 사고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에서 언급하지 않은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새로운 예를 (나)의 4문단에서 '선이 아니면 악, 아름다움이 아니면 추함'과 같이 제시한 후,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가 ~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한 번 더 강조하여 마무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7.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쓰기

(나)의 제재인 '이분법적 사고'의 특성이 표제와 부제에 드러나 있으며, 부제에서는 '이분법적 사고'를, 세상이 흑 아니면 백으로만 칠해진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부제에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표제에 제재의 특성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표제에 제재의 특성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부제에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작문]

8.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 파악하기

예상되는 독자의 반론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제시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의 '생활체육이란 ~ 말한다.'에서 주요 개념

인 생활체육의 정의를 제시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의 '주민들 대다수가 ~ 부족하다는 것이다'에서 시설 측면의, '주민들의 참여를 ~ 부족하다는 것이다'에서 프로그램 측면의, '우리 지역은 ~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에서 홍보 측면의 문제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의 '그렇다면 ~ 해야 할까?'에서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의 '첫째 ~ 확충해야 한다.' '둘째 ~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 실시해야 한다.'에서 각각 순서를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므로 적절하다.

9.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파악하기

[자료 2-㉑]에서 10 ~ 20대가 정보를 얻는 경로 중 누리 소통망의 비중이 제일 크다는 것을, [자료 3]의 '누리 소통망을 ~ 높였다'에서 누리 소통망을 통한 이벤트로 청소년층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문단의 '우리 지역 ~ 한정되어 있다.'에서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누리 소통망을 통한 이벤트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례로 제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① [자료 1]을 보면 전국 생활체육 참여율에 비해 우리 지역 생활체육 참여율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문단의 '우리 지역의 ~ 못하고 있다.'의 구체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자료 2-㉒]에서 생활체육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음을 '모른다'는 응답이 70%인데 비해 '안다'는 응답은 25%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2문단의 '우리 지역은 ~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자료 3]의 '○○시는 ~ 열고 있다.'에서 선수 훈련용 경기장을 개방하면서 주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3문단의 '주민들이 ~ 확대할 수 있다'의 사례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자료 1]에서 우리 지역 생활체육 참여율의 증가 추세를, [자료 3]의 '시민들의 ~ 확대해야 한다.'에서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3문단의 '다양한 ~ 제공해야 한다'에 덧붙여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조언에 따라 고쳐 쓰기

<보기>의 '지역 주민 ~ 있고'와 '지역 사회는 ~ 가능하다'에서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 각각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는 조언대로 생활체육의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개인과 사회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①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로 나누어 글을 썼지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생활체육에 참여할 때 유의할 점과 올바른 생활체육 참여 방법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생활체육의 유래와 앞으로 변화할 생활체육의 미래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생활체육의 ~ 가치가 있다.'에서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갖는 사회적 의의를 엿볼 수 있으나 생활체육 참여의 장애 요인은 언급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문법]

11.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이해하기

'부엌'의 발음은 [부억]이다. 이를 소리 나는 대로 적

으면 '부억'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에서 '이는 자음이나 모음과 같은 음소를 조합하여 다양한 말소리를 그대로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 표음 문자인 한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모이'는 자음 'ㅁ'과 모음 'ㅛ'로 조합된 한 음절 '모'와 'ㅣ'로 된 한 음절 '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웃으면'은 실질 형태소 '웃-'과 형식 형태소 '-으면'의 경계가 드러나도록 어법에 맞게 표기한 경우이므로 적절하다. ⑤ '갈비탕을 시켜 먹었다'와 '갈비탕을 식혀 먹었다'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시켜'와 '식혀'의 의미 구별이 어려우므로 적절하다.

12.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 제32항 이해하기

- ㉠ '견다'는 본말 '거두다'의 어간에서 끝음절의 모음 'ㅓ'가 줄어들고 자음 'ㄷ'만 남는 경우로, 자음 'ㄷ'을 앞 음절 '거'의 받침으로 적은 준말이므로 적절하다.
- ㉡ '갖고'는 본말 '가지고'의 어간에서 끝음절의 모음 'ㅣ'가 줄어들고 자음 'ㄱ'만 남는 경우로, 자음 'ㄱ'을 앞 음절 '가'의 받침으로 적은 준말이므로 적절하다.
- ㉢ '저녁놀'은 본말 '저녁노을'이 체언 '저녁'과 체언 '노을'이 결합한 말로 본말이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말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돼'는 본말 '돼이'의 어간 '되-'와 어미 '-어'가 줄어든 말로 본말의 어간에서 끝모음의 모음이 줄어들고 자음만 남는 경우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엇그저께'는 본말 '어제그저께'가 체언 '어제'와 체언 '그저께'가 결합한 말로 본말이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말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13.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현상 이해하기

'해맑다'는 'ㄹ'이 탈락하고, 'ㄷ'이 'ㅌ'으로 교체되어, 음운이 줄어들었으므로 적절하다. ① '살살이'는 'ㅌ'이 'ㄷ'으로 교체되고, 'ㅅ'이 'ㅆ'으로 교체되며, 'ㅌ'이 'ㅣ' 앞에서 'ㄷ'로 교체되어, 음운의 개수는 변화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넓히다'는 'ㅂ'과 'ㅎ'이 결합하여 'ㅃ'으로 축약되어, 음운이 줄어들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교육열'은 'ㄴ'이 첨가되고,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음운이 늘어났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국화꽃'은 'ㄱ'과 'ㅎ'이 결합하여 'ㄱ'으로 축약되고, 'ㅌ'이 'ㄷ'으로 교체되어, 음운이 줄어들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4. [출제의도] 높임 표현 이해하기

ㄱ은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여 문장의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ㄱ은 종결 어미 '-어라'를 사용하여 청자인 '범서'를 낮추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ㄴ은 종결 어미 '-습니다'를 사용하여 청자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ㄴ은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여 문장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ㄷ은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생각인 '걱정'을 높여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5.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이해하기

두음법칙은 어떤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서 발음되는 것을 꺼리는 현상으로, 본래 첫소리가 'ㄴ'이나 'ㄹ'인 한자음이 단어의 첫머리에 쓰일 때, 'ㄴ'이나 'ㄹ'이 탈락하거나 'ㄴ'이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이다. 그러나 '네'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썰리고'와 '쓸머'는 현대 국어 '뿌리고'와 '쓸머'와 달리 초성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이 함께 쓰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어버이'는 현대 국어 '어버이'와 달리 목적격 조사 '를'이 쓰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스랑ㅎ머'는 현대 국어 '사랑하며'와 달리 'ㅎ'가 표

기에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⑤ 현대 국어 '나라를'은 체언 '나라'와 목적격 조사 '를'이 결합한 것이다. 이와 달리, '나라홀'은 'ㅎ'을 끝소리로 가진 체언 '나라ㅎ'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인문]

[16 ~ 21] <출전> 박영욱,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공간을 넘어서」

16.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는 모더니즘 시기의 건축에 대한 미스 반데어로에와 르코르뷔지에의 관점을 소개하며, (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기의 건축에 대한 푸코, 벤틀리, 추미의 관점을 소개하며 각 관점이 지닌 특성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7.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나)의 3문단에서 '모더니즘 건축이 명료성을 내세웠다면 ~가두는 것을 거부했다.'를 보면 모더니즘 건축이 명료성을 내세운 것과 달리 포스트모더니즘 건축가인 벤틀리는 모호성을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했으므로 모더니즘 건축은 명료성을 추구하는 반면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은 모호성을 추구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① (나)의 1문단에서 '이에 영향을 받은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를 보면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은 기계적이고 무미건조한 모더니즘 건축을 비판하며 개별성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포스트모더니즘 건축과 달리 모더니즘 건축은 개별성을 중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나)의 1문단에서 '이에 영향을 받은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를 보면 포스트모더니즘 건축가들은 합리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기존의 시스템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은 효율성의 중시를 통해 합리성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의 1문단에서 '이 시기의 건축가들은 ~영향을 미쳤다.'를 보면 모더니즘 건축가들의 활동이 건축의 영역을 도시 계획 디자인, 산업 디자인 등으로 확대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모더니즘 건축은 건축의 영역에서 도시 계획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의 영역을 제외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의 1문단에서 '이에 따라 건축에서도 ~생기게 되었다.'를 보면 모더니즘 건축에서는 철근과 콘크리트를 활용하여 기둥과 벽을 최소화하여 건축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모더니즘 건축과 달리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은 철근과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주로 사용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8.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 이해하기

(나)의 2문단에서 '그는 18세기부터 ~작용한다고 주장했다.'를 보면 푸코는 격자 구조의 도시 공간이 위생학적 측면에서는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기능을 하기도 한다고 하고 있고, [자료 1]에서 건축가 A는 도시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 체계 중심의 격자 구조의 도로망을 연결하는 도시 설계안을 구안하고 있다. 따라서 푸코는 건축가 A의 도시 설계안은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격자 구조의 도시 공간에 위생학적 기능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므로 푸코는 격자 구조의 도시 공간에는 위생학적 기능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가)의 3문단에서 '또한 도시를 계획하는 일에도 ~구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를 보면 르코르뷔지에는 사람보다는 차를 중심으로 도시를 공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료 1]에서 건축가 A는 교통 체계 중심의 격자 구조의 도로망을 연결하는 도시 설계안을 구안하고 있다. 따라서 르코르뷔지에는 사람보다는 차를 중심으로 도시를 공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건축가 A의 도시 설계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나)의 3문단에서 '포스트모더니즘 건축가 벤틀리는 ~모더니즘 건축의 흐름에 저항했다.'를 보면 벤틀리는 형태를 기능에 가두는 모더니즘 건축의 흐름에 저항하고 있고, [자료 2]에서 건축가 B는 기능과 상관없는 구조물이나 장식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주택을 설계하고 있다. 따라서 벤틀리는 모더니즘 건축의 흐름에 저항하므로, 건축가 B가 설계한 주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가)의 2문단에서 '또한 그는 폐쇄적인 구조를 ~공간을 구축하였다.'를 보면 미스 반데어로에는 건축물의 폐쇄적인 구조를 지양하고 공간을 기능적으로 활용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료 2]의 건축가 B는 이동 가능한 칸막이가 실내에 설치된 주택을 설계하고 있다. 따라서 미스 반데어로에는 폐쇄적인 구조를 지양하고 공간을 기능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건축가 B가 설계한 주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나)의 4문단에서 '추미는 모더니즘 건축의 ~실현하는 유희의 건축이다.'를 보면 추미는 시각적 화려함을 추구하는 낭비의 미덕을 중시하고 있고, [자료 2]의 건축가 C는 주거 기능과 경제적 효율성만 추구하는 건물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추미는 시각적 화려함을 추구하는 낭비의 미덕을 중시하므로, 건축가 C가 설계한 주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 추론하기

(나)의 4문단에서 '추미는 모더니즘 건축의 ~유희의 건축이다.'를 보면 추미는 모더니즘 건축의 금욕주의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낭비의 미덕을 실현하는 유희의 건축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 2]의 ㉠는 기능과 상관없는 구조물이나 장식적인 것들을 배제한 건물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추미에게 ㉠는 지나치게 금욕적인 모더니즘의 건축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미는 [자료 2]의 ㉡가 금욕주의에서 벗어나 유희의 건축이 실현되었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2문단의 '그는 기능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를 보면 미스 반데어로에는 장식과 기능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장식을 공간 구성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자료 2]의 ㉢는 기능과 상관없는 구조물이나 장식적인 것들을 배제한 건물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미스 반데어로에는 [자료 2]의 ㉣가 장식과 기능을 분리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배제한 건물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가)의 3문단에서 '이는 격자 구조의 도로망으로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를 보면 르코르뷔지에는 격자 구조의 도로망으로 도시 공간을 구획하면 도시의 기능을 이상적으로 구현하면서 동시에 미적으로 이상적인 도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료 1]의 ㉤는 교통 체계 중심의 격자 구조의 도로망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르코르뷔지에는 [자료 1]의 ㉥가 도시의 기능적 측면과 미적인 측면을 모두 이상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나)의 2문단에서 '그는 18세기부터 ~작용한다고 주장했다.'를 보면 푸코는 격자 구조의 도시 공간은 권력이 작동하는 그물망으로도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 1]의 ㉦는 격자 구조의 도로망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푸코는 [자료 1]의 ㉧가 권력이 작동하는 그물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나)의 3문단에서 '그래서 그는 ~남게 된다고 주장했다.'를 보면 벤틀리는 모더니즘의 공간에서는 공간의 미적 차원이 소멸되어 획일적인 공간만이 남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 2]의 ㉨는 모더니즘의 건축물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벤틀리는 [자료 2]의 ㉩가 미적 차원이 소멸되어 획일적인 공간만 남았다고 판단할 것이

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20. [출제의도] 내용 추론하기

(가)의 2문단에서 ‘그는 기능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말한다.’를 보면 미스 반테어로에는 기능적으로 필요한 공간 이외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에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건축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는 추론은 적절하다. 또한 (나)의 3문단에서 ‘벤틀리에게 모더니즘 건축은 ~남게 된다고 주장했다.’를 보면 벤틀리는 기계적이고 무미건조한 모더니즘의 건축물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에 기계적이고 무미건조한 건축물을 거부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는 추론은 적절하다.

21.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㉞는 ‘부신(符信)이 꼭 들어맞듯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맞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과학]

[22 ~ 25] <출전> 이문옥, 「해양에너지 공학」
조철희 외, 「해양에너지개론」

22.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2문단에서 ‘노즐은 좁은 구멍을 통해’ ‘배관으로 냉매를 내뿜는 역할’을 하며, ‘냉매는 노즐을 통과할 때 속도가 증가’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서 ‘최근 해양에서 얻을 수 있는 ~해양 온도차 발전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에서 ‘기화기 양옆에는 표층수가 이동하는 취수관과 배수관이 있다’와 4문단에서 ‘응축기 양옆에는 심층수가 이동하는 취수관과 배수관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1문단에서 ‘해양에서는 태양열을 흡수한 정도에 따라 ~심층수 사이에 온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5문단에서 ‘우리나라 동해는 ~유리하다고 평가받’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3.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은 냉매 펌프, ㉡은 기화기, ㉢은 터빈, ㉣은 응축기이다. ㉤ 기화기의 취수관으로 들어온 해수는 표층수이며, ㉥ 응축기의 취수관으로 들어온 해수는 심층수이다. 2문단에서 ‘기화기 양옆에는 표층수가 이동하는 취수관’이 있고, 표층수의 온도는 1문단에서 ‘약 20℃를 유지하는 표층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문단에서 ‘응축기 양옆에는 표층수가 이동하는 취수관’이 있고, 심층수의 온도는 1문단에서 ‘약 4℃를 유지하는 심층수’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 기화기의 취수관에서 들어온 해수의 온도가 ㉥ 응축기의 취수관에서 들어온 해수의 온도보다 낮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냉매 펌프는 배관에 일정한 압력을 가하여’ ‘냉매를 입구 쪽으로 이동시킨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터빈의 내부 공간으로 유입’된 냉매는 ‘부피가 급격히 팽창’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냉매가 회전 날개를 움직이며 발생한 회전 날개의 운동 에너지’는 ‘발전기를 구동시키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2문단에서 ‘기화기 출구 쪽에 설치된 노즐’과 4문단에서 ‘노즐이 없는 응축기 출구를 지’난 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4.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은 냉매 펌프, ㉡은 기화기, ㉢은 터빈, ㉣은 응축기이다. 2문단에서 ㉤ 기화기로 유입되는 냉매는 ‘액체 상태’, ㉥ 터빈으로 유입되는 냉매는 ‘기체 상태’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 기화기로 유입되는 냉매의 온도가 ㉥ 터빈으로 유입되는 냉매의 온도보다 높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냉매 펌프는’ ‘액체 상태의 냉매’를 이동시킨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 기화기에서 나와 ㉥ 터빈으로 이동할 때는 ‘모두 기체 상태가 되어 배관을 따라 터빈으로 이동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 터빈에서 나갈 때 ‘액체와 기체가 혼합된 상태가 되어’ 이동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에서 ㉥ 응축기로 들어올 때는 ‘액체와 기체가 혼합된 상태’, 나갈 때는 ‘냉각되어 액체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 응축기로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냉매의 온도가 더 낮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25.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1문단에서 열전달량은 ‘열을 전달하는 면적과 온도 차이에 비례’한다고 하였으므로, 해수와 냉매 사이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열을 전달하는 면적이 넓을수록 열전달량이 많아지고, 발전 효율은 높아진다.

[사회]

[26 ~ 30] <출전> 이충섭 외, 「원가회계」

26.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윗글에서 비제조원가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답을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다.

① 1문단에서 ‘원가란 ~측정한 것’이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5문단에서 ‘변동원가는 ~대표적인 예로 제품의 재료비를 들 수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7문단에서 ‘고정원가, 변동원가, 혼합원가를 ~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2문단에서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의 합에 ~판매가격이 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27.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4문단에서 ‘원가행태에 따라 원가를 분류하면 고정원가, 변동원가, 혼합원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원가회계에서는 ~단위당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1문단에서 ‘기업은 원가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원가회계를 활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1문단에서 ‘원가회계란 정확한 원가나 ~경영 관리 활동 중 하나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에서 ‘원가회계에서는 조업도의 변화에 따른 원가의 움직임을 ~임의로 정하고’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8. [출제의도] 핵심 정보 이해하기

6문단에서 ‘단위당 전기 요금은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의자 생산량이 2월보다 3월에 더 늘어나 조업도가 증가하였고, 단위당 공장 전기 요금은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비제조원가는 광고비나 운반비 등과 같이’라고 하였고 <보기>에서 광고비는 1월부터 3월까지 1만원으로 매달 동일하므로 적절하다. ② <보기>에서 단위당 목재 구입비가 1월부터 3월까지 5만원으로 동일하고, 의자 생산량은 3월에 가장 많다. 2문단에서 ‘단위당 제조원가는 ~발생한 제조원가의 총액을 총생산량으로 나누어 구한다’고 하였으므로 목재 구입비로 발생한 원가의 총액은 의자 생산량이 가장 많은 3월에 가장 높으므로 적절하다. ④ 5문단에서 ‘변동원가는 ~대표적인 예로 제품의 재료비를 들 수 있다’고 하였고, 4문단에서 ‘고정원가는 ~기계 설비 대여비, 공장 임차료 등을 들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보기>의 목재 구입비는 변동원가이고,

공장 임차료, 기계 설비 대여비는 고정원가이다.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변동원가의 비중이 고정원가의 비중보다 높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에서 ‘고정원가는 조업도의 변화와 상관없이 원가의 총액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4월에 생산량이 없더라도 고정원가인 공장 임차료는 발생한 원가의 총액은 변하지 않으므로 적절하다.

29. [출제의도] 핵심 내용 추론하기

4문단에서 ‘고정원가는 ~기계 설비 대여비, 공장 임차료 등을 들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기계 설비 대여비는 고정원가이고, 4문단에서 ‘단위당 임차료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감소한다’고 하였으므로 조업도를 높이면 단위당 기계 설비 대여비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문단에서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의 합에 예상 수익을 더한 것이 판매가격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제조원가가 줄어들면 그만큼 기업의 예상 수익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조업도를 높이면 단위당 기계 설비 대여비가 감소하고 단위당 제조원가가 줄어들어 기업의 수익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므로 적절하다.

30.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제조원가 총액을 총생산량으로 나누어 구한다’의 ‘나누다’는 ‘나눴셈을 하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피를 나누’는 ‘같은 핏줄을 타고나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말이나 이야기, 인사 따위를 주고받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즐거움을 나누며 살았다’는 ‘즐거움이나 고통, 고생 따위를 함께 하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불량품과 정품으로 나누는’은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을 구분하여 분류하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현대소설]

[31 ~ 34] <출전> 전광용, 「흑산도」

31.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복술이는 동무들과 맞잡고 ~즐거지만 했다.’, ‘용바우에게 복술이는 거리낌도 수줍음도 없었다.’ 등에서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2.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안 갓재라, 내일이 유왕님 고사 모시는 날이랑이께.’ 라는 용바우의 말에서 고사가 ‘내일’임을 알 수 있으므로, 용바우가 고사도 가지 않고 복술이를 기다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용바우는 열다섯에 첫 배를 탔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복술이는 송기 벗기러 갔을 때’ 본 ‘인실이 어머니의 다리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용바우는 ‘열다섯에 첫 배를’ 탄 후, ‘박영감과 함께’ ‘조기잡이로 시작된 뱃길이 어느새 십년이 흘렀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복술이는 ‘한아부지가 기다’린다는 생각에 ‘아쉬운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노래 중간에 뺨소리를 쳐’ 집으로 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3. [출제의도] 공간의 기능 이해하기

복술이는 ‘눈’이 ‘갯가로 옮겨’질 때마다 ‘용바우의 믿 음직한 목소리’가 ‘귓전을 어루만’지고 있다고, ‘까막 바위에 선 복술이’는 ‘눈앞에’ ‘고래등 같은 용바우가 가로막고’ 서 있다고 느끼며 용바우를 떠올린다. 또한 ‘용바우는 어느새 복술이가 제 물건처럼 소중해졌

다'에서 복술이가 용바우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 ㉡은 모두, 인물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복술이는 '육지에 가서 자리만 잡으면 할아버지도 모시자는 곱슬머리의 눈동자에' '진정이 고였다고 생각' 하지만, 곱슬머리는 섬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육지'로 떠나자고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섬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섬사람들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까막개 사람들이 '바다가 키워 주어 미역과 자반과 생선으로 목숨을 이'어가는 것과 '그들은 바다에서 나서 바다에서 죽었다. 용바우 아버지도 그랬고, 복술이 아버지도 그랬다.'에서, 삶의 터전이자 시련의 공간인 바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까막개 사람들이 '원수인 바다에 끝없는 저주를 보내'는 것과 '바다에 대한 지성'을 다하기 위해 '허물없고 깨끗한 젊은이들'을 '용왕계 집사로 뽑'아 용왕계를 준비하는 것에서, 바다와 대립하면서도 바다를 숭배하는 섬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복술이가 인실이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진 후 '인실이 어머니의 다리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리며 '시집을 가면 저러라 싶으니 등골이 오싹'해져 '의사가 있는 육지에 가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것에서, 열악한 환경인 섬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섬사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복술이가 '용바우가 내일 틀림없이 연락선으로 돌아올 것만 같'다고 느끼며 '갑자기 마을 쪽으로 쓴살같이 달아'나는 것에서, 섬사람의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선택한 섬사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고전시가 · 고전수필]

[35 ~ 38] <출전> 순천 김 씨, 「노부탄」,
이인로, 「청학동기」

35.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의 '어릴 때 엇나간 입을 내 어이 길들이리'에서 '어릴 때 엇나간 입'에 대한 한탄이, (나)의 '어떻게 하면 유자기와 같은 고상한 선비를 만나 나도 한번 그곳을 찾을 수 있을까?'에서 이상적 공간에 대한 소망이 물음의 방식을 통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을 들은 후 시적 화자가 '글공부 하던 허비~부경부엌하였다면'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신의 지난날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을 들은 후 시적 화자가 '듣고 말하여 무익하오'라고 하는 것에서 상대와의 대화를 단념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7.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에서 '진(秦)나라 사람들이 전란을 싫어해서' 들어간 '거기'는 '훗날에 그곳의 경치를~여기게 되었다'를 통해 청학동이 아니라 '도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에서 '지리산의 발단이 북쪽의 백두산에서부터 시작'되어 '대방군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의 설명은 적절하다. ② ㉡에서 '청학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청학동이라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에서 청학동을 찾아가는 중에 '바위들이 아름다움을 자랑하고~살구꽃 사이로 어른거리'는 자연 풍경에 대한 감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에서 도원기에 언급된 도원이 청학동과 닮음이 없는 곳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8.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나)의 '청학동은 끝내~시를 바위에 남겼다.'에서 속세와 단절된 이상적 공간을 찾으려 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던 작가의 경험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하지만 (가)의 '규중에 어리석은 부녀 그 말을 믿었더니'는 '모인 사람'이 남편의 '대소과' 합격에 대해 '한결같이 하는 말'에 대한 반응이므로 남편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작가의 모습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벼슬길에 못 올라서 귀향은 무슨 일인가'에서 '부세에 좋은 영광'을 '과거'라고 여기던 작가가 남편이 '벼슬길'에 못 올라서 기대가 좌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머나먼 변방 길에 가네 오네 빛이로다'에서는 '빛'으로 인한 작가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남은 전지 역농이나 하자하니'에서는 부정적 상황에 '역농'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작가의 경험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의 '청학동으로 들어가 살며 속세와 절연하고자 했다'와 '화엄사에서 출발'한 것에서 속세와 절연하고자 이상적 공간인 청학동을 찾으려 했던 작가의 경험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문닫고 돌이켜 생각하니 오나 어이하리'에서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난 후 자신의 기대가 좌절된 현실을 수용하는 작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나)의 '어떻게 하면 유자기와 같은 고상한 선비를 만나~그곳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에서 이상적 공간을 찾는 것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작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현대시]

[39 ~ 41] <출전> 신석정, 「청산백운도」,
문정희, 「새 옷 입는 법」

39.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는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으나, (나)는 '왜 자꾸 새 옷을 차려입고 싶은지 왜 자꾸 사운사운 시를 짓고 싶은지'에서 '왜 자꾸~을 ~고 싶은지'라는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나)에는 '사운사운'이라는 음성상징어가 있으나 (가)에는 음성상징어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가)와 (나)는 모두 역설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나)는 '새들은 풀잎 같은 혀로 시 짓는 법을 들려주네'에서 청각적 심상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으나, (가)는 청각적 심상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가)와 (나)는 모두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0.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에는 '아침이 또 찾아왔'다고 하여 아침이 밝아 새로 시작하는 하루를 맞이하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날 뿐, 아침이 와도 변하지 않는 일상의 한계를 보여 주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은 산의 모습을 '발'은 '투박한 대지'에,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산다고 표현하여 머리와 발의 대비를 통해 산이 지향하는 공간이 하늘임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은 '하늘과 땅이 비롯하던' '그 아득한 날 밤부터' '산맥 위'로 '푸른 별이 넘나들었'다고 하여 푸른 별이 넘나드는 움직임이 오래전부터 지속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은 도시에 사는 '우리'를 '모두 고향을 버리고 온 새'라고 하여 우리의 상황이 동일함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은 '이 도시'가 '악어들이 검은

입을 벌'리고 있다고 하여 검은색의 색채이미지를 통해 도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나)에서 '새들은 풀잎 같은 혀로 시 짓는 법을 들려'주고, '나무들은 몸으로 춤을 보여' 준다는 것은 화자가 인식하는 자연의 모습을 나타낸 것일 뿐, 자연으로부터 배운 삶의 방식을 험난한 현실에서 실현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에서 화자는 자연을 '푸른 산'이 '언제나 송고할 수 있는' 불변성과, '고산식물들을 품에 안고 길러'내는 포용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에서 화자는 '무척 부러워'하는 '푸른 산'의 '이마'를 '흰 구름이 되는 날' '어루만지'겠다고 하여 동경하는 자연과 어우러지고 싶은 희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에서 화자는 '새로 핀 꽃'을 보며 '어머니를 만'난다고 하여 자연을 모성을 지닌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에서 화자는 '늪은 산'이 '수려한' '이마'를 지녔고, '흰 구름'은 그 '이마를 쓰다듬'는 존재로, (나)에서 화자는 내리는 '비'를 '어깨를 감싸 주는' '부드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어 자연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고전소설]

[42 ~ 45] <출전> 작자 미상, 「임호은전」

42.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임호은이 장을 맞는 장면에서 '형장 소리만 산천이 뒤덮는 듯하니'와, 천자와 천자를 모신 세 장수가 호왕의 성에 있는 장면에서 '세 장수는 얼굴이 백지장 같아 병기를 잡지 못하였으며' 등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임호은이 호왕의 성에서 천자를 구하는 장면에서 '호왕을 베고자 하나 행여 천자의 옥체 상할까 하여 천자를 옆에 끼고 몸을 날려 나올새'를 통해 호왕을 베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천자의 '어찌 용히 짐의 위태함을~목숨을 구하노.'라는 물음에 '신이 적소에서 천기를 보온즉 폐하의 주성이 운무에 싸였기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양처상이 호연수에게 '그대는 우림군~머리를 베어 오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호연수가 각로 부자에게 달려들어 베고자 할 때 '홀연 공중에서~언파에 연수를 잡아 문밖에 내치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임 부마가 성에 들어가 동정을 살피는 장면에서 '호진 장졸이 모두~부마가 들어오는 줄 알지 못하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발화내용 이해하기

[A]는 '신자가 되어 어찌 군명을 거역하리오.'를 통해 신하로서 어명을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복종의 당위성을, '그대는 우리 부자의 몸을 결박하라.'를 통해 어명을 순종하라는 호연수의 요구를 임호은이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B]는 '짐이 불명하여~용담호구에 들었거늘'을 통해 천자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것을, '독행만리하여 사지에 있던 임금을 구하니'를 통해 천자가 임호은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임 부마’가 ‘달세통, 장운간을 각각 발길로 차서 던지’고 ‘전포로 천자를 가리우며 봉안을 높이 떠 호왕을 보며 꾸짖’는 장면에서는 천자가 자신을 구하는 인물이 임호은임을 모른다. 따라서 천자로부터 신하로서의 명예를 회복한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양척상과 사일보 등이 위조 서간을 만들어 천자에게 드’리는 장면을 통해 윤리적으로 타락한 양척상과 사일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집장무사가 힘을 다하여’ 치는 ‘장’을 맞고도 ‘각로 부자’가 ‘조금도 상하는 곳이 없’는 장면을 통해 비범한 능력으로 고난을 견디는 임 부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임 부마’가 ‘한 번 들어 치니, 한 줄 화광이 일어나’는 ‘벽력도를 들고 좌우충돌’하며 ‘호진 장졸’을 물리치고, ‘천자를 옆에 끼고 성을 넘’는 장면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는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일진 장졸이 부마의 용맹함을 보고 회열’하며 ‘만세를 부르’는 장면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인정받는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